



RWA

NYSE, 토큰 증권 시대의 문을 열다

▶ Analyst 최윤영 yy.choy@hanwha.com 3772-7402

NYSE는 미국 상장 주식·ETF를 토큰 형태로 거래·정산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ICE의 디지털 자본시장 전략과 맞물린 인프라 개편으로, SEC 인가 시 미국 내 최초의 증권거래소 레벨 토큰 증권 시장으로서 상징성이 큼니다. 플랫폼은 기존 상장증권의 토큰화와 온체인 네이티브 증권을 모두 지원하며, 배당·의결권 등 주주권을 동일하게 보장합니다. ICE는 토큰화 예치금을 청산소에 도입해 24/7 마진·담보 이전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며, 온체인 기반 자금·담보 운용 인프라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미국 외 투자자의 접근성은 SEC·FINRA 인가 범위와 참여 브로커 구성, 그리고 각국의 자본시장 규율 적용 방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NYSE, 토큰 증권 거래소 설립 추진

NYSE가 미국 상장 주식·ETF를 토큰 형태로 24시간 거래·정산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발표했다. 거래는 즉시 결제 구조로 설계되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는 233년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리뉴얼로 모회사 ICE의 디지털 자본시장 전략과 직결된 움직임이다. SEC 승인이 전제되지만, 인가 시 미국 내 최초의 증권거래소 레벨 토큰 증권 시장(24/7 온체인 상장·거래 구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또한 LSE, NASDAQ, JPX 등 경쟁 거래소 대비 거래·청산·결제·보관을 통합한 ICE의 우위가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

새 플랫폼은 NYSE의 Pillar 매칭엔진 위에 다중체인 결제·보관 인프라를 결합한 구조로, 기존 상장증권을 토큰화한 증권과 온체인에서 발행된 네이티브 증권을 모두 지원한다. 토큰 보유자는 배당·의결권 등 전통 주주와 동일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며, 주문 단위는 금액 기준으로 설계돼 분할투자가 기본 기능으로 제공된다. 기존 T+1 결제 관행과 달리 거래·결제·보관 전 과정이 블록체인 상에서 즉시 정산되는 구조로, 브로커의 증거금·결제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T+0 시장 구조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제도적 실험으로 평가된다.

ICE, 청산·담보 인프라까지 확장하는 온체인 전략

ICE는 NYSE 토큰화 플랫폼을 그룹 차원의 디지털 전략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전 세계 6개 청산소 인프라를 24/7 운용 및 토큰화 담보 구조에 맞게 재설계하고 있다. BNY멜론, 씨티 등과 협력해 토큰화 예치금(tokenized deposits)을 청산소 레벨에 도입해, 전통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마진 납부·담보 이전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이는 증거금·유동성 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JP모건·골드만삭스·BNY멜론·State Street 등이 추진 중인 토큰화 MMF와 더불어 온체인 운용 채널을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NYSE는 토큰 증권 플랫폼을 내부적으로 개발 중이며, 향후 SEC·FINRA와의 협의를 통해 어떤 시장 구조(거래소 vs ATS 등)를 채택하고, 어떤 상품과 투자자 범위를 허용할지가 실제 확산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으로는 글로벌 접근을 지향하지만, 국내 투자자의 실제 접근성은 참여 브로커 구성과 한국 거주자 계정 허용 여부, 그리고 토큰 증권에 대한 국내 자본시장 규율 적용 방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 외 시장 참여자 관점에서는 미국 주식 브로커리지의 온체인 연동, 야간·주말 거래 서비스, 스테이블코인·토큰화 예금 기반 자금 관리 등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1월 21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윤영)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87.0%	13.0%	0.0%	100.0%